

'붕어빵 교육' 가라... 폭발하는 代案학교 (1)

새로운 교육을 찾는 사람들

고학력·전문직 학부모들 ‘혁명’ 이끈다

섬유사업을 하고 있는 조창근(47)씨는 고2, 중3인 두 딸이 대안 학교인 이우학교(경기도 분당)에 다니는 것에 흡족해 하고 있다.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에 살며 두 딸을 일반학교에 보내던 조씨는 2003년 이우학교 개교와 함께 분당으로 이사했다. 이우학교엔 둘째딸 조인(15)양이 먼저 다녔다. 성격이 좋아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학교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 조씨는 “아이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일까’라는 회의가 들어 아이에게 권했는데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큰딸 조은(17)양은 공부를 잘 했지만, 동생이 다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선택했고, 조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조양은 생태연구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 중이다.

교수·의사·교사·사업가 자녀 크게 늘어  
강지원 변호사 “두 딸이 학교·진로 선택”

입시훈련에 인생낭비 “10년후 주류교육 바뀔 것”

대안학교는 더 이상 ‘소수의 의식 있는’ 부모들이 보내는 곳도, ‘그들만의 대안학교’도 아니다. 그 흐름은 고학력·전문직 학부모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몇 해 사이 대안학교엔 대학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직업군 종사자의 자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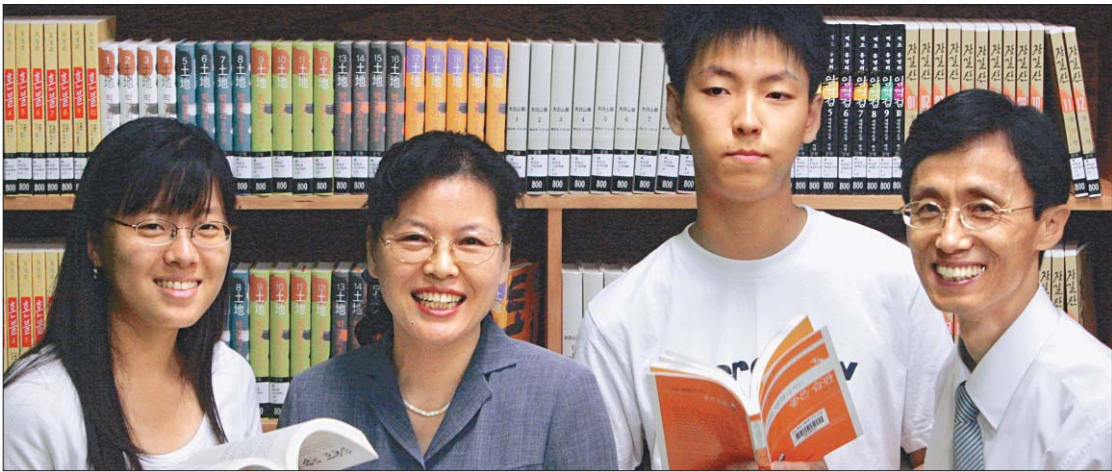
영남대 교양학부 이태우 교수는 딸 진규(16)양에게 대안학교 진학을 제 안했다. 이양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중학교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전북 남원)를 나온 후 대안학교인 달구벌고에 재학하고 있다.

“매년 대학 신입생들을 보면 자기 목표도 없이 부모가 취업이 잘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 그렇게 4년을 보내면 청춘이 아깝지 않은가. 중고교 때부터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권 교육의 틀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할까란 의문을 늘 가져왔다”며

“아이들이 양육되는 병아리처럼 획일적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의 개성도 살릴 수 없고, 결국 개인도 불행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형적인’ 엘리트 부부인 김영란 대법관과 강지원 변호사 부부 역시 두 딸에게 대안학교를 먼저 권했다. 큰딸 민형은 대안학교 한빛고교(전남 담양)를 마치고 현재 미국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



교사이면서 자녀들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준원(맨 오른쪽)·김은정씨 부부가 방학 중인 진양(한동대)·찬수(세인고) 남매와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다. ‘학교’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와 자식 모두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특이한’ 가족이다. 채승우기자 (블로그)rainman.chosun.com

고 있다. 작은딸 선형은 이우학교에 다니고 있다. 옷만들기에 소질이 많은 선형은 디자이너가 아닌 옷수선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한다.

“큰애는 고3 때 입시공부를 전혀 안 하고 수능시험도 거부했다. 졸업 후 혼자서 진로를 탐색하더니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작년에는 현재 고3인데 공부하란 말을 전혀 안 한다.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20여년간 교단을 지키고 있는 중·고교 교사 부부 이준원·김은정씨. 대학 3학년인 딸은 대안학교인 전북 세인고에 출신이고 아들은 현재 세인고에 재학 중이다. 이씨는 지금도 학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주요 과목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개개인의 재능이 무시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김씨도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수능점수 잘 받아 일류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음”이라고 반문했다. 두 부부는 은퇴 후 조그만 대안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다.

이태우 교수는 가끔 동료교수들로부터 어떻게 대안학교에 보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 교수는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는 교육 문제 차원이 아닌 삶의 가치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대안교육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닌가. 10년, 20년 후

엔 대안교육이 ‘주류 교육’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

팀장=양근민기자 (카페)study.chosun.com

안석배기자 (블로그)sbahn.chosun.com

정시행기자 (블로그)polygon.chosun.com

이완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년)

오늘날씨

해돋이 06:56  
해질녘 19:12

달돋이 22:15  
달질 12:00

지역별 날씨

(최저/최고)

인천 19/22 서울 19/23 청주 19/24 대전 20/24 광주 20/27 전주 20/27 부산 21/26 울릉·독도 19/22 춘천 17/22 강릉 19/21

비율 확률(%)

오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세계의 날씨

LA 16/25 뉴욕 18/28 런던 11/19 파리 10/18 모스크바 10/23 베이징 18/31 방콕 28/36 시드니 9/19 카이로 24/36 로마 17/30 리우데자네이루 16/20

주간날씨

	서울	인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제주
26(금)	☀ 21/25	☀ 20/25	☀ 17/24	☀ 20/27	☀ 22/29	☀ 22/28	☀ 23/27
27(토)	☀ 20/27	☀ 20/27	☀ 22/27	☀ 20/28	☀ 21/30	☀ 23/27	☀ 24/29
28(일)	☀ 21/28	☀ 21/28	☀ 23/28	☀ 20/29	☀ 21/30	☀ 23/29	☀ 23/28

골프장·등산·낚시 날씨정보는 weather.chosun.com 기상안내 : 국번없이 131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2000 2001 2004 2002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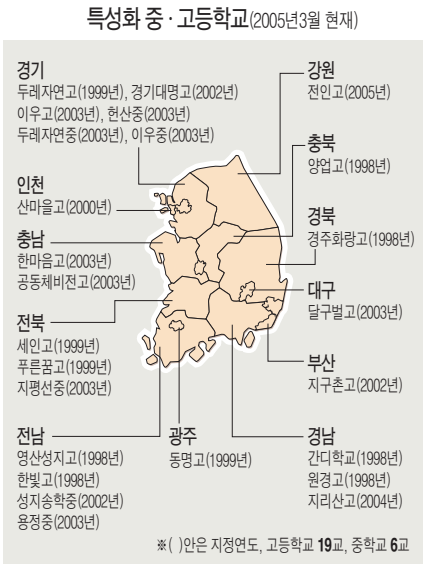
WHISEN

학력 테스트도 서울 인문高 놀려 ‘이우학교’

‘도심 통학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는 학생 중 85%가 성남(분당)·용인에서 통학한다. 나머지는 서울과 과천·군포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중산층 집안이다. 부모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 많다. 직업은 사무직·예술가·자영업 등 다양하다. 입학 때 학부모 면접을 따로 볼 정도로 ‘부모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우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가 적극 참여한다. 중·고교 학부모 400여명은 대부분 5개 학부모위원회(도서·교과지원·홍보·재정·환경)와 동아리(백두

대간·독서)에 소속돼 있다. 홈페이지 ‘학부모방’에는 늘 새로운 글과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아이들이 통합기행으로 경기도 도보회단을 했습니다” “학교에 야생화를 심으면 어떨까요” “○○○선생을 초청해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교육문제를 놓고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방과 후 실시되는 특기적성 교육도 학부모들 몫이다. 예를 들어 도예·염색수업, 문화인류학 강좌는 해당 분야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학부모

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정광필 교장은 “교과지원위원회에 속한 학부모님이 50여명 된다. 대부분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이 분들이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우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이우학교(중3)와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1학년)들에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문제해결력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이우학교(74점)가 상대학생(45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태극기 무료배부는 선거법 위반”

서울시, 선관위 통보에 1000원씩 반기로

백연필

○...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장 본관 전면에 설치됐던 태극기(135cm×90cm) 3600장(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태극기 배부 신청을 받은 것은 24일부터. 태극기의 태극 문양 밑에 ‘서울시청이 태극기들을 뒤덮인 사진’과 ‘광복 60, 회랑 60’이란 글귀를 인쇄한 뒤 배부해 시민들이 집 안에 걸어놓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서울선관위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선관위는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인터넷 창을 내리고 무료배부 계획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시의 한 간부는 “소장하고 싶다는 시민들 요청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고, 지방 거주자와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



자에게도 주는데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태극기를 그냥 폐기하라는 말이나”고 어이없어 했다. 서울시는 일단 9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 당첨자들로부터 1000원씩 받고 태극기를 나눠주기로 했다. 태극기 1개 구입가가 2700원이니, 저가 배부인 셈이다. 서울시는 선관위가 저가 배부도 문제 삼는다면 재판까지 갈 생각이다. 24일 현재 태극기 배부 신청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박종현기자 (블로그)jhpark.chosun.com

www.enct.co.kr

Real English City - ENCT 영어마을

국내최초 사립 영어마을

ENCT 영어마을

2005년 10월 4일, 국내 최초의 사립영어마을, ENCT영어마을이 문을 엽니다.

영어도시로 섬세하게 설계된 ENCT영어마을은 학교, 상점, 식당 등 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영어만을 사용하여 직접 체험학습함으로써 해외 어학연수 이상의 학습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루 최대 30여가지의 시추에이션과 일인당 최대 39명의 외국인인을 만나는 신나는 영어여행 - Real English City ENCT영어마을로 매일 떠나세요!

영어체험샵 운영하실 분 모집

1차 모집지점 - 부평점, 연수점, 일산점

체험샵 종류 - 푸드샵, 아이스크림샵, 멀티샵, 편의샵, 문구/팬시샵

푸드샵 멀티샵 편의샵 문구/팬시샵 아이스크림샵

영어권 국가의 미국적인 인테리어 100% 무상지원

주방 집기, 간판 등 모든시설 100% 무상지원

체험샵마다 원어민 점원 고정배치(원어민 인건비 100% 무상지원)

체험샵마다 일정금액 주어지는 ENCT달러로 안정된 매출 보장

소정의 보증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기타 비용 전혀 없음

영어회화 능동자와 영어권국가 거주경험자 우대

당사 구매팀에서 일괄적인 상품조달이 가능함으로 초보자도 운영가능

영어체험샵이란?

모든 생활 공간이 영어로만 이루어지는 ENCT영어마을 안에 미국적으로 설계된 실제 상가(바, 식당, 카페, 편의점, 구내)는 모든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체험형 상업시설인 동시에 체험교육시설의 장점을 함께 갖춰 강력한 체험효과와 함께 참가자들의 성공도 함께 드릴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한 매일 100분의 체험 영어 학습 6개월은 해외 어학연수 1년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매일 떠나는 영어 유학 | 02)3775-3333 enct ENCT 영어마을